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뒤통수 맞는 체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뒤통수 맞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의 신념과 정의에만 눈이 멀어 있을 때 그런 체험을 합니다. 하느님은 나의 신념과 정의를 지지해주셔야 할 의무에 매여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내가 만든 하느님 모습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뒤통수 맞는 체험’은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제1독서에는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임금을 뽑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느님의 선택은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기에 겉모습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일곱형들이 아닌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1사무 16,12), 막내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한편 제2독서 에페소서의 저자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에페 5,8)라고 권고합니다. 아울러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에페 5,10)라고 덧붙입니다. 어둠이 자리 잡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느님의 자녀답게 빛을 향해 걸으라는 초대이며 격려입니다. 빛이신 하느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눈먼 사람이 안식일에 치유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질병과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신학이 퍼져있었습니다. 그러나 예

수님께서는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요한 9,3)라고 하십니다. 반면 바리사이들은 눈먼 이를 위한 치유가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둡니다. 안식일 노동금지 계명(탈출 20,10; 31,14,15;35,2; 레위 23,3; 신명 5,14)에 따라 바리사이들은 눈먼 이가 눈을 뜨게 된 사실을 함께 기뻐하기보다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침내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9,39)라고 이르십니다. 심지어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요한 9,41)라고 일침을 놓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준과 바리사이들로 표상된 인간들의 기준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순 제4주일 성경 말씀은 신앙의 여정에서 ‘뒤통수 맞는 체험’에 관하여 묵상하도록 이끅니다. 내 신념과 나만의 정의, 내가 빚어놓은 하느님 모습을 깨뜨릴 수 있는, 즉 ‘뒤통수 맞는 체험’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이 있을 때 하느님 사랑과 자비의 빛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에파타성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42길 5

1957년 돈암동성당에서 청각장애인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1965년 명동대성당에서도 청각장애인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86년 두 공동체가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수유동 지역에서 수화 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2013년 마장동의 대지를 매입하고 2015년 추가로 대지를 매입하여 2017년 7월 기공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농아선교회를 준본당으로 승격하였고 2018년 8월 농아선교회 준본당을 에파타 준본당으로 개명하였습니다. 2019년 8월 성전 축복 미사를 봉헌했고, 에파타본당으로 승격하였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 다음 호부터는 복음 묵상 사진이 게재됩니다.